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신라 백성들이 「풍요」를 부른 까닭은?

노동의 고됨과 서러움 담아 공덕을 환기

1. 양지와 사색
일찍이 붓다는 이 세계를 '고해(苦海)'라고 하였다. 갖은 굴욕과 모멸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바세계를 세상살이의 괴로움과 서러움을 깨닫고 살아가는 바다라고 본 것이다. 고통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없는 불만족'과, '앞으로 펼쳐지는 세계를 다 살필 수 없는 불안정'을 가리킨다. 마치 '두 바퀴 중 하나가 찌그러져서 거나 부서져서 빠그덕 거리며 굴러가는 수레' 처럼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붓다는 세상살이의 본질을 고통이라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현실에 대한 부정의 성찰이 아닌 진실의 통찰을 보여주었다. 붓다는 고통이란 욕망하는 인간인 우리를 존재 그 자체의 기반이자 존재의 본질이라고 갈파하였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수행을 하여 극복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보살을 향해 지극한 공덕으로 고통을 털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 고통을 스스로 해쳐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살이의 고통과 서러움을 담아 노래를 지어 부를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공덕가와 찬불가 및 노동요와 민요들이 탄생하였다. 노래에는 그들의 고통과 슬픔 및 그리움과 희망을 담아내었다. 아이들은 이들 노래를 귀담아 듣고 흥에 겨워 따라 불렀다. <삼국유사>의 <해>편에 실린 유일한 향가인 '양지사석'(良志使錫)조의 「풍요」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공덕가'라고 할 수 있다.

선덕여왕 때 활동하였던 양지(良志)의 조상과 고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양주동과 김사업은 '양지'는 '아치'의 차자(借字)이며 아치는 공장(工匠)을 뜻하는 '바치'의 음전(音轉)이라고 하였다. 아마도 양지는 불상을 전문으로 만드는 조각승, 즉 '불모'(佛母)를 일컫는 통칭으로 짐작된다.

양지는 절에 재(齎)가 있을 때면 늘 지팡이 머리에 포대 하나를 걸고 놓았다. 그러던 지팡이가 저절로 시주하는 것으로 날아가 흔들거리며 소리를 내었다. 그 집에서 이것을 알고 재에 쓸 비용을 넣어 주었고 포대가 차면 날아서 되돌아 왔다. 이 때문에 양지가 머물고 있던 절을 석장사(錫杖寺)라고 불렀다. 그의 헤아릴 수 없는 신이 한 행적은 늘 이렇게 이루어졌다. 양지는 여러 가지 기예(技藝)에도 두루 능통하여 신묘함이 견줄 데가 없었다. 또 글씨와 그림을 잘 그려 영묘사(靈廟寺)의 장륙 삼존 및 사천왕상과 아울러 전각과 탑의 기와와 사천왕사 탑 아래의 8부 신장과 범립사(法林寺)의 주불삼존 및 좌우 금강신 등이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양지는 영묘사와 범립사 두 절의 현관을 썼다. 그는 일찍이 벽돌을 다듬어 작은 탑 하나를 만들었다. 아울러 불상 3천구를 조각하여 그 탑 안에 안치하고 그 탑을 절 가운데 모시고 나서 예를 올렸다. 양지가 영묘사의 장륙삼존을 만들 때 스스로 선정에 들어가 삼매에서 빈 부처의 모형을 하였다. 그래서 온 성안의 남녀들이 다투어 진흙을 나르면서 「풍요」(風謠)를 불렀다. 이 노래는 선덕여왕 4년(635) 때 지어진 것으로 보아 사니가(詞腦歌) 가운데 「서동요」와 「해성가」 다음으로 오래된 노래라고 할 수 있다. 「풍요」는 양지가 영묘사의 장륙삼존을 흙으로 빚어 널(塑造) 때 성안에 가득한 남녀들이 젖은 흙을 운반하면서 부른 민요라고 할 수 있다.

2. 노동요와 불가

본디 노동요란 사람들이 함께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가리킨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 중의 하나인 상주시 공검면의 「모내기 노래」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풍요」는 신라 선덕여왕 때 불상 주조에 쓸 진흙을 나르던 이들이 부른

노동요와 공덕가 입장 나누어 '풍요' 양지 범사가 만든 민요 불사 노동자들이 부르기 시작

는 노동요이다. 당시 신라인들은 이러한 노력의 공덕으로 세상살이의 고통과 서러움을 잊으려 했다. 때문에 「공덕가」라고도 부른다. 균여대사가 지은 향가 「보현심종원왕가」(11수)는 여러 부처들의 공덕을 찬탄하고 칭찬하는 노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노래는 붓다를 경배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찬탄하고 칭찬하는 구도로 지어졌다. 반면 「풍요」는 붓다를 향한 경배와 찬탄과 칭찬이 아니라 불상 주조에 쓸 진흙을 나르는 자신들의 고통과 서러움을 담아 공덕의 다텔을 환기시키는 노래이다.

“오다 오다 오다[來如來如來如來]/ 오다 셔렵다라[來如來反多羅]/ 셔렵다 의내어[哀反多矣徒良]/ 공덕 닻?라 오다[功德修叱如來來如來]” (양주동 역).

“왔구나. 왔구나./ 아 인생이란 일장춘몽이다./ 과연 셔렵더라/ 그래서 왕생극락하기 위해. 절로 공덕을 닦으러 모여 들었다.” (이재호 역)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서러운 이 많아라./ 서러운 중생의 무리여./ 공덕 닦으러 온다.” (김완진 역) “오다. 오다. 오다./ 서러운 곳이라./ 서러운 곳의 무리여./ 공덕 닦으러 오다.” (신재홍 역)

“오다 오다 오다/ 오다 슬픔 많아라/ 슬



양지가 머물던 석장사에서 출토된 문양토우

픈 많은 우리 무리여/ 공덕 닦으러 오다.” (황폐강 역)

여기서 '래여'(來如)는 '이와 같이 가신 따타가타'(tathaa+gatha) 즉 '여거'(如去)의 다른 표현인 '이와 같이 오신 따타가타'(tatha+agatha) 즉 '여래'(如來)의 어순을 뒤집어 '오다'를 뜻하고 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는 '오는구나' 혹은 '왔도다' 또는 '오라' 등의 표현으로 읽어도 무방해 보인다.

연구자들마다 해독(解讀)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크게 노동요(勞動謠)로 보는 관점과 불가(佛歌)로 보는 관점으로 나뉘고 있다.

노동요로 보는 관점들은 “방아쟁기(도구질) 노래의 발생 설화”(지현영), “피지배계층의 불사와 관련된 불만 섞인 노동요”(윤영옥), “신심이 두터운 사녀들이 불사에 참

여하며 부른 노래”(박주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불가로 보는 관점들은 “재에 드는 비용을 얻고자 시주의 문전에서 불렀던 불가”(김종우), “불사에 참여하며 불교의 영적 체험을 노래화한 것”(황폐강), “허망한 현실을 살면서 공덕을 쌓자는 공덕가”(최철) 등이다.

양주동은 민요 즉 자신의 서러움과 괴로움을 노동을 통해 극복하려는 공덕가로 보고 있다. ‘양지사석’ 조목의 내용과 연관지어 보면 이 노래는 가사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덕가’라는 맥락에서 불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주동의 관점은 노동요와 불가를 아우르되 그 형식이나 내용이 민요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본 것 같다. 「풍요」는 「도솔가」와 「서동요」와 함께 4구체 향가이며 4구의 형식 속에 밀도 있게 내용을 담고 있

다. 일연이 “지금까지 이 지방 사람들이 방아를 쥘 때나 힘든 일을 할 때에 다들 이 노래를 부른 것은 대개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불상을 만들 때 든 비용은 곡식 2만 3,700석이었다(혹은 금색을 다시 칠할 때 든 비용이라고 한다)”는 내용에 근거해 보면 「풍요」는 ‘노동요’이자 ‘불가’ 즉 ‘공덕가’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역사를 보는 눈

흔히 고대의 대형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매우 경직된 관점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이틀테면 왕실은 황릉사의 그 넓은 절터에 들어선 수많은 전각과 구층 목탑을 조성하기 위해 수많은 민중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억압하였다고 보는 시각이다.

즉 당시의 지배계급은 백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불교의 세계관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었다는 관점은 사안을 지나치게 정치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시각이다. 물론 당시에 그런 점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생각

당시 민중 불사 자율 참여도 많아 이분법적 시야 옳지 않아 대중교화 방편 재조명해야

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직장’ 개념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한 이들도 있을 것이다. 또 자신의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기 위해 자발적으로 장륙 불상 조성에 필요한 진흙 운송에 참여한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을 배제한 채 오직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분법으로 전선을 긋고 바라보는 관점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다. 당시에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그 역사의 현장에 ‘관광차’ 혹은 ‘연구차’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역사가 아무런 흔적도 없는 그곳에 우리가 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밟고 있는 불적 토대 즉 역사 문화적 기반을 인정하지 않고서 모든 것을 대상화해서 비판적으로만 바라보면 진정한 역사관을 세울 수 없게 된다. 당시의 백성들이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자율적이든 타율적이든 그곳의 역사에 참여했기에 오늘의 우리가 그곳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과거의 역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에서도 적용되는 것이다.

당시 양지는 「풍요」의 창작 계기가 된 영묘사 장륙 삼존을 조성하기 위해 몸소 선

정에 들어가 삼매에서 붓다를 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친견한 붓다를 모형으로 장륙 삼존의 설제도를 그려냈다. 황릉사 장륙 삼존과 마찬가지로 영묘사 장륙 삼존은 1장 6척 즉 4미터 80센티의 거대한 소조상이었다. 이런 불상을 모시기 위한 전각은 적어도 화엄사 각황전(覺皇殿)과 같은 중층의 대법당이였을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장륙 삼존에 들어간 진흙을 비롯해 좌우 보처의 보살상을 비롯한 사천왕상, 전각과 탑의 기와와 사천왕사 탑 아래의 8부 신장에 들어간 진흙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이었을 것이다. 거기에도 또 그가 조성한 범립사 주불 삼존 및 좌우 금강신에 이르러면 소요된 진흙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을 것이다. 양지는 선덕여왕 당시 신라 원광과 안함과 자장에 필적하는 법력을 지닌 최고 승려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자신의 석장을 부리며[使錫] 그 법력을 자유자재 펴면서 대중교화를 하였다.

하지만 당시나 지금이나 양지는 주로 사찰의 편액을 쓰는 서예가이자 불보살상을 조성하는 조각가 즉 불모로만 알려져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양지의 법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해서 일연은 “양지법사는 재주를 다 갖추었고 덕행이 충만한 큰 인물이었지만 허물은 재주만 드러내고 자기의 실력은 숨긴 것이라고 할 만하다”고 하였다. 그런 뒤에 일연은 이렇게 기리고 있다. “재 마치면 법당 앞에 석장에 홀로 향불 피우네/ 남은 불경 읽고 나니 더 할 일 없어/ 부처님 모습 빚어 합장하고 비오리.” 일연의 찬사에 이은 현대의 시인 이성복은 「래여에만다라 3」에서 “이 순간은 남의 순간이었던가/ 봄바람은 남의 베니어 판/ 털 빠진 못에 걸려 있기도 하고/ 깊은 숨 들이 마시고 불어도/ 고운 먼지는 날아가지 않는다/ 깨우지 마라, 고운 잠/ 눈 감으면 벌건 살코기와/ 오돌토돌한 간척법을 먹고 싶은 날들/ 깨우지 마라, 고운 잠, 아무래도/ 나는 남의 순간을 사는 것만 같다”고 하였다. 일연의 ‘더 할 일 없는 석장’이나 이성복의 ‘고운 잠 속에서 남의 순간을 사는 것’ 같은 ‘오다 셔렵더라’의 한 구절 그리고 「풍요」의 풍요로움은 ‘진실에 닿은 아름다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민족문화추진회, 『삼국유사』(민족문화추진회, 1976).
권성로 역해,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65; 1990 중판).
이병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민족사, 2005; 2007).



고영석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우수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 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수 강 료 : 무료
- 문 의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평(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 (소장 처평)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을 비롯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75-3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성 등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질식사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되어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